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령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3분 묵상

그리스도의 연민

길 잃은 양들처럼 흩어진 사람들 사이로
주님의 눈길 하나, 저녁 햇살처럼 내려앉는다.

상처를 감춘 채 웃고 있는 영혼들,
그 깊은 침묵까지도 먼저 알아보시는 분.

가없는 마음이 아니라
당신 가슴이 함께 아파오는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당신 눈물에 섞으시고
우리의 길을 당신 발걸음으로 걸으신다.

익어가는 들판 위 바람처럼 연민은 퍼져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느님의 자비가 된다.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6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시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우리 본당 목표 금액 - \$ 57,774

06/01/2026 기준

본당 목표 금액 - \$ 57,774

현재 기부 금액 - \$ 8,645

현재 참가 인원 - 37명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2)



<생애 계속>

1년 후 풀려난 토마스는 파리대학으로 가 알베르토 마누스의 지도아래 1250년까지 5년간 공부하고 알베르토가 쾰른에 수도원 대학을 세우기 위해 갈 때 동행해 학생들을 가르치며 한편으로 알베르토에게 강의를 들었다. 1252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중요성을 간파한 알베르토는 토마스를 파리대학에 보내 연구할 수 있도록 했다. 토마스는 스물일곱의 나이로 프란치스코회의 보나벤투라와 함께 파리대학교 교수가 됐다. 이때 성서학과 롬바르두스의 명제집을 강의하며 명제집을 간결히 정리하고 논증하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과 원리를 도입한 신학을 전개했다. 1259년 이탈리아로 파견된 토마스는 같은 수도회 소속으로 희랍문헌들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던 외르베케 빌헬름을 알게된다. 그가 번역해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들은 그리스어를 잘모르던 토마스의 철학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됐다. 이 시기에 토마스는 자신의 대표작인 『신학대전』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마흔넷이 되던 1269년 토마스는 다시 수도회에 의해 프란치스코회와의 학문적 대립이 첨예해진 파리대학교로 가게 됐다. 신앙을 강조하는 극단적인 아우구스티노주의와 이성을 강조하는 극단적인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사이에서 자신만의 노선을 추구하던 토마스는 이 시기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저술을 하게되고 방대한 신학대전 2부도 이때 씌여진다. 1272년 로

마로 되돌아온 토마스는 나폴리에 수도원 대학을 설립하라는 명을 받고 나폴리로 갔다가 1274년 리옹공의회에 참석하라는 교황의 명을 받고 리옹으로 가던 중 1274년 3월 7일 선종했다.

사상

토마스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사고를 받아들여 구체적인 사물에서 사고를 시작했다. 결국 토마스의 사상은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사물에 대한 설명이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경험적 사물들에서 출발해 그 존재가 무엇인지,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탐구함으로써 모든 존재사물의 근거로서의 최고 존재 곧 하느님을 탐구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토마스에 의하면 모든 사물 곧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자체”에 참여(participatio)하고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철학적인 이 설명을 교회용어로 풀면 창조가 된다. 그리고 이 창조는 신에 의해 자유로이 이뤄지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철학의 원리인 존재자체에 대한 탐구를 창조론과 연결시킴으로써 토마스는 자신이 출발점으로 삼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넘어섰다.

또한 토마스에 의하면 창조된 모든 사물은 자신의 근원인 창조주에게로 되돌아가려는 근본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구원이다. 창조가 신에 의해 자유로

이 이뤄지는 것처럼 구원도 사물들의 마지막 선택에 따라 이뤄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토마스가 쓴 명제집 주해서에 따르면 “피조물이 그들의 제일원천에서 생성되어 나오는 과정은 ‘일종의 윤회’와 같은 것이며 여기서 모든 사물은 태초에 그들이 출발점으로 삼았던 바로 그곳을 목적으로 삼아 되돌아간다”고 했다.

이처럼 토마스는 사물의 세계에서 출발해 신에게로 나아가고자 했다. 그래서 토마스는 인간의 행복을 “신을 직관하는 것”이라 표현했다. 토마스의 이러한 사상은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선종하기 얼마전인 1273년 12월 6일 미사 중 신비 체험을 한 이후 더 이상 저술을 하지 않는다. 토마스는 자신의 친구요 비서였던 레지날드에게 “내가 바라본 것과 비교한다면 이제껏 내가 저술한 모든 것이 지푸라기와 같다”고 대답했다.

공지 사항

1 시노드 5차 모임

- 일시 : 6/14(주일) 오후 1시
- 장소 : 성전
- 주제 : 우리 자녀들과 본당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모든 시노드 참가자께서는 각 소그룹별로 5차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역의 날

- 일시 : 6/14(주일) 교중미사 후
- 각 구역원들은 모두 함께 모여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3 하늘뜨락제 관련 단체장 회의

- 하늘뜨락제 관련 2차 단체장 회의가 있습니다. 하나 되는 하늘뜨락제를 위해 바쁘시겠지만 모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6/21(주일) 오전 11:30
 - 장소 : 101호실

4 성당 50주년 기념 기금 안내

50주년 기념행사 및 기념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기금을 모금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5 여름 특강

- 주제 : 화해와 일치, 시노드
 - 대상 : 전신자
 - 일시 : 7/5(주일) 10시 미사 후 (1시간 30분)
 - 강사 : 이제열 바실리오 신부님 (교황청립 성서연구원)
- 특강으로 이날 11시30분 미사는 없습니다.**

꽃동네 피정 프로그램

- 주제 : 관계의 치유, 감추어진 사랑
- 대상 : 전신자
- 일시 : 7/11(토) 1pm - 5pm(총 4시간)
- 강사 : 조인혁 타대오 신부님 (현 가나 꽃동네 분원장)
- 신청 : 피정 준비관계로 참가자는 QR 코드로 스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본당 설립 50주년 묵주기도 50만단 봉헌

- 본당 설립 50주년을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봉헌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간 : 7/1/2025 - 8/31/2026
 - 대상 : 전신자

7 2027 세계 청년 대회 확정 신청서

세계 청년 대회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교황과 함께하는 보편 교회의 큰 행사입니다.

기도, 미사, 교리 교육, 그리고 가톨릭 신앙을 익히는 시간으로, 교회의 보편성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신앙을 더욱 깊이 하고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증인이 되도록 격려합니다.

관심자 신청서를 작성하신 분들께서는 참석 여부를 결정하여 확정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정 신청서 시 작 : 4/5/26 (주일)
- 확정 신청서 마감일 : 7/26/26 (주일)
- 문의 : standrewkimworldyouthday@gmail.com 혹은 위원장 이선재 마르티노 justin123yi@gmail.com

입당송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 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제 구원의 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제1독서..... 탈출 9,2-6 7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화답송

◎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제2독서..... 로마 5,6-11
〈아드님의 죽음으로 화해하게 되었다면 그 아드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 알렐루야.

복음..... 마태 9,36-10,8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셨다.〉

영성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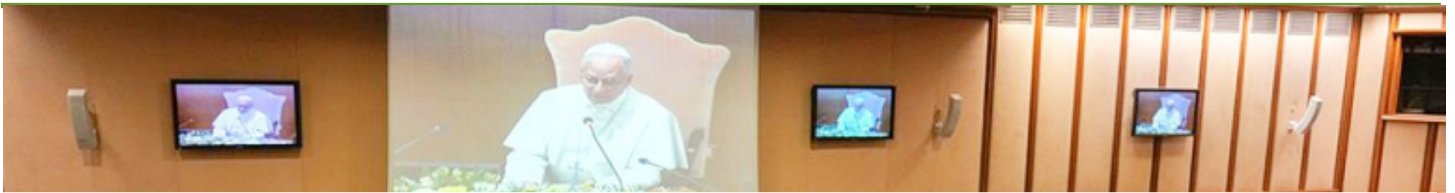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성가 안내	입당 성가 : 4	예물준비 성가 : 210, 512	성체 성가 : 157, 154	파견 성가 : 63
-------	-----------	--------------------	------------------	------------

성체 성혈 대축일(6/7)	토요 저녁(7:00)	주일 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49명	67명	260명	-	49명	425명

"50주년 기념 미사 및 견진 성사"





[특별기고] 레오 14세 교황 첫 회칙 「고귀한 인류」 톺아보기
 “기술혁신의 주인은 인류” … 교황은 ‘사랑의 문명’ 을 건설하자 했다



- 레오 14세 교황이 5월 25일 바티칸에서 회칙 「고귀한 인류」 를 직접 발표하고 있다. OSV

AI 시대, ‘사랑의 문명’ 을 재건하는 인간의 소명

레오 14세 교황의 첫 회칙 「고귀한 인류」 (Magnifica Humanitas)가 5월 25일 교황과 주요 참석자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바티칸 새 시노드 홀에서 반포되었다. 「고귀한 인류」 는 레오 13세 교황의 회칙 「새로운 사태」 (Rerum Novarum) 135주년을 맞이한 지난 5월 15일에 서명되었고, 25일 공개 발표회와 함께 반포됐다.

공개발표회는 교황청 신앙교리부 장관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 안나 로울랜즈(영국 더럼 대학교 신학자) 교수, 크리스토퍼 올라(미국 AI 기업 엔트로픽의 공동 창업자), 레오카디 루솜보(캘리포니아 산타 클라라 대학교 예수회 신학대학원 정치신학 및 가톨릭 사회학) 교수, 교황청 온전한 인간발전촉진부 장관 마이클 체르니 추기경 순으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번 회칙은 AI와 인간 존엄 관련 그리고 세계 평화문제에 대한 교회의 대응을 다룬 첫 사회 회칙이다. 그 배경에는 오늘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혁명이 인간 삶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새로운 것들(res novae)”에 직면한 인류에 대한 깊은 위기의식이 놓여있다.

이번 회칙의 주요 내용은 소주제에 명시된 것처럼 “인공지능 시대 인간존재 보호함(On Safeguarding the Human Person in the Time of

바벨탑 쌓기

인공지능 시대, AI를 '무장해제' 하자

권력·교만에 의지하는 힘의 문화, 바벨탑 무장해제, 기술 보유와 권력의 연계 거부, AI의 잠재력 인정하되 경계심 지니고 활용

느헤미야의 길

AI, 사랑의 문명 재건 현장 되어야

협력하며 성벽 재건하는 느헤미야 시대처럼, 특권층만이 아닌 인류 모두 위한 집 건설, 인간성·공동선 지키며 정의롭게 공존해야

Artificial Intelligence)”이다. 교황은 첫 회칙 공개발표회 마무리 발언에서 AI가 현대 사회에 미치는 위험요소에 대한 자신의 무거운 책임감을 표명하면서 다음 두 가지를 강조하였다.

하나는 ‘AI를 무장해제(disarm)하는 것’이다.(회칙 110항 참조) 무장해제라는 강력한 언어를 교황이 선택한 이유는 AI 시대에 인류를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이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이다. 교황은 AI 시대에 기술을 가진 권력자가 자동으로 통치권을 갖는 것을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무장해제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리고 AI는 누구든 활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AI의 무장해제라는 말을 사용한다. 따라서 교황의 AI 무장해제는 기술을 독점적 통제에서 해방하고, 토론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인간 친화적으로 만들자는 의미이다. 예로, 평화와 인류를 위

한 핵 군축과 공동이익을 위한 핵에너지의 공동 사용이다.

교황이 강조한 다른 하나는 AI가 ‘인류의 건설 현장(constructive site)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AI는 공동선을 건설하고 사랑의 문명(civilization of love)을 재건하는 ‘역사의 건설현장(constructive site)이 되어야 하는 것’이 교황의 목소리다.(회칙 90항 참조) 교황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 이야기처럼, 모든 이가 함께 벽돌 하나하나를 쌓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의로운 공존을 이루자고 했다. 마지막으로 교황은 AI 시대에 소수의 특권층만이 아닌 인류 공동의 집을 위한 미래를 함께 건설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마니피캇의 성모님을 찬양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회칙의 구성 및 내용



- 레오 14세 교황이 5월 25일 발표한 회칙 「고귀한 인류」. OSV

장에서 교황은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techno-cratc paradigm)의 지배가 점점 커지는 위험을 분석하며(92~96항), 기술혁신을 이끌어야 하는 인간의 주체성(지성, 양심, 자유 등)을 강조한다. 현재의 AI 시스템은 ‘만들어진(built)’ 것 이라기보다 ‘배양된(cultivated)’ 것에 더 가까워(98항)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다. 한마디로 AI는 “가치 있는 도구이지만 경계심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AI 사용에 대한 책임성, 투명성, AI 거버넌스는 명확한 기준과 실질적 감독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108항), 앞서 언급한 AI ‘무장해제’의 필요성을 주장한다.(110항)

마지막 부분은 우리 마음에서 투쟁하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두 도시와 두 사랑(Two cities and two loves)”을 언급한다. “두 사랑이 두 도시를 세웠다. 곧 하느님을 멀리하기에 이르는 자기 사랑이 지상의 도시를 세웠고, 자기 자신을 멀리하기에 이르는 하느님 사랑이 하늘의 도시를 세웠다.”

과 상업화로부터 인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교황은 과거의 노예제에 대한 용서를 청한다.(176항) 마지막 부분은 디지털 경제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에 대한 규탄이며,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제도·기업·중간조직·시민)이 강조된다.

제5장은 평화와 사랑의 문명에 관한 전망으로 나아간다. 교황은 AI 군비경쟁과 자율살상무기 개발을 강하게 경고하면서 ‘힘의 문화’가 아니라 ‘사랑의 문명’을 재건해야 한다고 촉구한다.(182~211항) 교황은 회칙 서론에서 언급했던 성경적 이미지의 두 가지 상반된 길을 비교하면서, 권력과 교만에 의지하여 바벨탑을 쌓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느헤미야 시대처럼 인내하고 함께하면서 인간성과 공동선을 지키자고 요청한다.

결국 이번 회칙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 또 어떤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레오 14세 교황이 언급한 바벨탑

회칙의 구성은 전체적 맥락을 요약한 서론과 결론, 그리고 본문 5장을 합해 총 5장 245개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장의 전개가 매우 진솔하고 세부적이며 논리적이다. 먼저 제1장은 교회의 사회 교리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개괄적으로 제시하고(17~24항), 레오 13세 교황부터 현재에 이르는 사회 교리 전통을 재조명하면서(28~45항), AI 시대 또한 교회가 외면할 수 없는 새로운 현실임을 밝힌다. 사회 교리는 고정되고 정체된 매뉴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발전하는 “복음에 충실한 역동적 성격(dynamic character)”이다.(45항)

제2장은 먼저 하느님의 모상(Imago Dei)인 인간 존엄성을 바탕으로 살아있는 실체와 같은 사회 교리의 기초와 원리를 설명하며(46~58항), AI 시대의 “새로운 것들(new things)”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 교리의 핵심 원리들을 다시 정리한다(59~81항). △공동선(common good) △재화의 보편 목적(universal destination of goods) △보조성(subsidiarity) △연대성(solidarity) △사회정의(social justice)다.

회칙의 주요 내용은 제3장과 제4장에 있다. 제3



- 레오 14세 교황이 5월 15일 회칙 「고귀한 인류」에 최종 서명하고 있다. OSV

제4장은 공동선으로서 진리·노동·자유를 보존을 강조하며, 전환의 시대에 사회 주요 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인간 중심적 AI 활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AI 시대에 교육·노동·어린이·노동시장·금융·경제·가족과 청년 등 각 분야에서 야기될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요소들을 분석하고 나아가 해법을 제안한다.(139~169항) 또 의존성

인가 아니면 느헤미야의 성벽 쌓기인가? 또한 힘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사랑의 문명을 건설할 것인가?

가톨릭평화신문, 2026년 6월 7일
김태오 신부 (마리아수도회, 목포가톨릭대 교수)